

한국 근대주거에서 나타나는 직주(職住)관계 변화 및 직주일치(職住一致) 주거공간의 특성

- 1920~1940년대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 -

Change in the Interface between “Place of Work” and “Place of Living” during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Home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 The Case Study of Transitional Type in Seoul, 1920's~1940's -

전남일*
Jun, Nam-I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interface between “place of work” and “place of living” in the housing sphere has changed, and to understand its social background. During the Korean modernization period,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toward industry has an influence on many aspects of modern life in addition to occupations. The traditional mixing of heterogeneous activities in the home—such as between reproduction and household affairs, first changed into a coexistence of two spaces with different functions within the boundaries of home, and finally into a spatial separation between functions in an urban dimension. As a result of this process, the primary role of the modern home is as a place for relaxation without work. One important kind of home, in which a retail shop is integrated with it, was researched as a transitional form. Its spatial layout showed a various combined usage of both spaces. In conclusion, changes in relevant macro-social aspects are very concretely reflected in the func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of the home.

Keywords : Place of work, Place of living, Interface between working and living space, Modernization, Korean retail shop

주요어 : 집과 일터, 직주일치, 직주근접, 직주분리, 근대화, 한옥상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는 19세기 말까지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경제·사회적 큰 변화 없이 조선시대까지 지속해 온 전통 사회는 개항을 계기로 서구문화가 들어오고, 1894년 갑오개혁을 겪으면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로 인한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사회구조의 변화는 가정과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거공간에도 큰 변화를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구조가 사회적 원인에 기인하고, 서로 다른 사회적 조건과 함께 변화하면서 시대적으로 변혁을 이루는 현상은 모두 사회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¹⁾. 따라서 주거의 변화와 공간특성의 변화는 결혼과 가족, 일의 분배, 남, 녀의 성적 역할, 상호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일’이라고 하는 생산활동 역시 주거공간의 구성 및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활동인 ‘일’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주거공간과 맺는 관계에 주목하여, 산업사회 이전 ‘생산활동의 장소’이기도 했던 주거공간이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휴식의 장소’²⁾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때 ‘휴식의 장소’로서의 주거는 현대 주거가 갖는 가장 큰 특성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대 주거에 이르기까지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거와 일’이 공간적으로 조절되고 균형을 이루는 현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 Häußermann & Siebel (1996), Soziologie des Wohnens, Juventa, pp. 12-13.

2) ‘휴식의 장소’란 주거공간에서 생산활동의 기능이 제거된 상태, 즉 의무감 없는 시간을 보내는 생활, 휴식과 소비의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즉 생산 및 소득활동의 반대 개념인 ‘일’을 하지 않는 장소인 것이다(상게서, p. 15).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부교수

이 논문은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통 주거공간에서 ‘집과 일터’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집과 일터’가 완전히 분리되기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특히 그 중간 단계에서 직주일치의 양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대, 즉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직주일치 주거공간의 특성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공간적 분화의 양상과 구성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이들 사례는 당시 사회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서울에서 등장했던 주거유형들로서 그 과도기적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아울러 생업과 주거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된 계층은 중인 및 서민계층 이하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인 계층의 경우 갑오개혁 이후 상업 및 공업생산 활동에 적극 나서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주역으로 등장했다³⁾. 직주관계의 변화는 이들 계층의 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따라서 반가(班家)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반 중인계층 주거 및 민가는 (수)공업생산 공간이 주거내 존재했던 경우와 상업 공간이 존재했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공간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는지, 어떠한 공간이 흔재했는지를 시기적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당시의 직주일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료를 토대로 기존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와 및 평면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II. 근대화 과정에서의 ‘집과 일터’

1. 근대 및 근대주거 논의의 틀

한국의 근대화 시점이나 근대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이 언제부터 근대적 사회로 진입했는가에 대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는 갑오개혁을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근대적 산업과 직업군이 등장했으며, 새로운 문물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싹이 트는 것이다. 이때부터 1950년대까지는 조혜정(1997)이 규정한 한국사회의 ‘식민주의적 근대형성기’

3) 조선 말기에 이르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양반 및 농민계층은 차츰 와해되어 갔으며, 이때 직업이 다양해지고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중인계층이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 이들은 공업, 상업 등 근대적 직업에 종사했고 경제력을 갖추었으며, 신분제도를 벗어나 경제력으로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은 계층이다(전남일 외(2008), 한국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pp. 58-59).

4) 조혜정(1997)은 한국의 근대형성 과정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전통적 농경국가사회에서 근대화 과정인 식민주의적 근대형성기(조선조 말~1950년대)와 개발주의적 근대(1960년대, 1970년대)를 거쳐 후기산업사회(80년대 이후)로 진행된다고 규정하였다(전남일(2002), 한국 주거내부공간의 근대화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p. 6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정한 시기적 범주는 여기서 식민주의적 근대형성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화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라 할 수 있다⁴⁾.

한편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정치·경제의 변화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변화, 도시화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생활방식 및 가족구성체의 변화 등 미시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동반하며, 이때 거시적, 미시적 요인은 상호연동하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체계와 생활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는 이를 받아들이는 근대적 주체를 기본으로 하는데, 근대적 주체란 합리적 사회제도의 규율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즉, 역사의 지배를 받는 일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상행위를 만들어 나가며, 또 다시 역사에 파드백되는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이것의 주체는 생활의 주체인 미시적 차원의 주체이다. 근대사회의 주거공간은 근대적 가치체계를 드러내며, 근대적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장소인 것이다⁵⁾.

근대주거 담론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의 이분화’, ‘주거공간의 기능화’, ‘사적공간의 소외’ 측면에서 주거의 근대화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때 ‘집과 일터’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근대화 담론이 어떻게 주거공간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고찰하였다⁶⁾.

첫째, 근대사회의 대표적 공간특성은 도시화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의 장소는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으로 이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근대적 생활의 특성은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시간적, 공간적 구분 없이 혼합된 구조 대신,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일정한 시간대로 나누어지고 반복되는 주기적 시간구조로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분리된 생활체계는 각각 분리된 공간, 즉 사적 생활의 장소인 주거공간과 공적 생활의 장소인 도시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공간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집과 일터가 일치하는 직주일치 형태이다. 한편 이분화된 도시와 주거공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들의 전문화와 분화 정도라 할 수 있다. 주거공간의 재생산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분리되는 이분화 현상은 근대 주거공간의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때 일상의 기능들은 주거공간의 반경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직업적 노동은 사회 속으로 이전되며, 이러한 기능 재편성의 결과는 주거공간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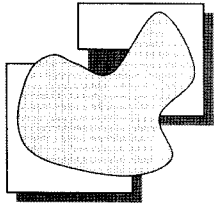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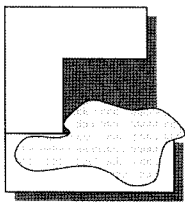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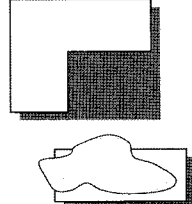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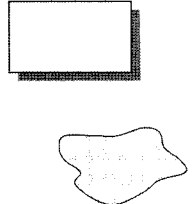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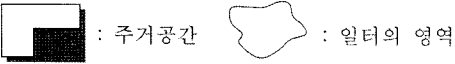


둘째, 도시와 주거 내에서의 엄격한 시간배분, 그리고 생활시간 및 생활행위의 기능적 배분은 공간의 기능적 배분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공간 사용의 규범은 일상생

5) 박진희(2004), 일제시대 주택개량론에 내포된 근대성,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 p. 12에서 재인용.

6) 이하 내용은 전남일(2006), 주거변화의 일상사적 담론과 한국 주거의 근대화과정, 대한가정학회지, 44(8), pp. 184-186의 내용을 발췌, 재정리한 것임.

7) 박재환 편(200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p. 364.

표 1. 직주혼합으로부터 직주분리까지의 단계와 경제사회적 특성

직주혼합	직주일치	직주근접	직주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내생산을 통한 자급자족 가사노동과 생산활동의 장 혼재 생산활동의 가정 내 협업 일과 생활의 시간구분 모호 가정 노동력을 이용한 비전문적 수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화소득을 통한 구매 가사노동과 생산활동의 장 분리 생산활동의 사회적 분업 일과 생활의 시간구분 일의 자본화와 전문화
 <p>공간적 혼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내에서의 생업을 위한 일의 종류: 수공업 	 <p>주거공간 내 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내에서의 생업을 위한 일의 종류: 수공업, 공업, 상업 	 <p>근거리의 공간적 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내에서의 생업을 위한 일의 종류: 없음 	 <p>원거리의 공간적 분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내에서의 생업을 위한 일의 종류: 없음
 <p>  : 주거공간  : 일터의 영역 </p>			

활의 전 과정을 특수한 수준에서 객관화한다⁷⁾.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사람들의 실제 장소 경험의 변화를 포함하게 된다. 이때 장소와 장소의 경계는 기능이 상호 투과되는 복합적인 상태, 그리고 반대로 각각 차별화되고 단일한 상태 사이에서 경험되는데, 이는 행위의 분화 및 공간의 기능적 분화와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업의 기능이 주거 밖으로 이전되면서 주거공간의 기능은 점차 단순화되는 것이다. 공간의 단일기능화 역시 근대적 주거공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대면관계, 타인과의 관계, 상호작용 등에 형식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범주화되며,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는 특정한 영역으로 설정된다⁸⁾. 우리는 공간의 심도와 층위, 그리고 차폐성과 거리 및 동선을 물리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제어, 또는 수용하게 된다.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점점 익명화되는 소외의 문제는 주거공간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즉, 주거공간은 공적 공간과 대비되는 도피처로써, 최대한의 익명성을 담보하게 되고, 이를 우리는 사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근대 이전의 주거공간에서 사회적 삶이 주류를 이루었고 대면적 관계가 바탕이 되었던 전통적 공동체 공간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해체된다. 이에 따라 개인은 점차 공공적 공간을 상실하고 결국 가족들간의 사적 관계로 구성되는 가정의 공간을 자신의 은신처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⁹⁾.

2. '집과 일터'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주거와 일의 관계를 직주혼합, 직주일치, 직주근접, 직주분리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사회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단계적 진행을 보이게 된다¹⁰⁾ <표 1>.

- 가사노동과 생산활동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분배되는가?
- 가정의 소비를 위한 필요 물품이 자급자족인가, 또는 시장에서 조달되는가?
- 그리고 그것을 위한 행위, 즉 '일'이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가, 또는 주거 밖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

1) 직주혼합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가정 내 생산 행위가 이루어진다. 일상에 필요한 소비재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띠고, 잉여산물 없이 생산물은 가정 내에서 소비된다. 특정 물품은 주거공간 외 공방 등에서 만들어져 유입되기도 하는데, 이때 생산자와 판매자는 동일하다. 가사노동과 생산활동은 구분 없이 이루어지며, 공간적 구분도 모호하다. 노동과 휴식의 생활시간 구분도 뚜렷하지 않다. 주거공간에는 일과 휴식의 기능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일을 위한 장소는 명백하게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10) 이러한 관계는 주거공간의 기능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사회에서 주거공간 내에서 모두 이루어졌던 혼례 및 제례와 같은 각종 집안 행사,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 기능이 사회가 현대화될수록 주거공간 밖으로 이관되어 가는 현상 역시 광의에서는 일과 주거의 분리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기능의 변화는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과 판매'의 행위, 즉 생업의 기능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8) 상계서, pp. 283-285.

9) 최병두(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p. 6.

2) 직주일치¹¹⁾

가사노동과 생업을 위한 노동은 구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생활시간의 분리는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생산자와 판매자가 분리되면서, 재화 소득의 수단으로서 소매업 등의 상업행위가 등장한다. 상업행위는 주로 주거공간의 일부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소위 가내수공업으로 불리는 소규모 생산행위도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생산행위는 가정 내 소비를 위한 것보다는 소득을 위한 것이 되고, 잉여생산물이 가정 내 소비재가 된다. 판매, 또는 생산 등 생업을 위한 공간은 주거 행위와 분리된 장소에 특정한 공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단계는 집과 일터의 관계가 근대적 형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인다.

3) 직주근접과 직주분리

직주근접 역시 직주분리의 일종이지만 그 구분은 집과 일터의 거리상의 차이이다.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 상업 및 공업공간이 확대, 정착되고, 주거행위 및 생업행위, 가사노동과 생업을 위한 노동은 완전히 분리되는데, 생산활동은 사회적으로도 분업의 형태를 띤다. ‘일’은 자본화된 생산활동이 되어 주거공간 밖의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써 ‘집 밖에서 급여를 받는 일’이 생업이 된다. 이때 생산과 휴식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일상에는 규칙적인 생활시간대가 형성된다¹²⁾. 이와 같은 변화의 단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표 1>과 같다.

3. 근대화 과정에서의 ‘집과 일터’의 관계 변화

1) 전통 주거공간에서의 생산기능과 직주혼합

한국 전통 주거공간은 생업을 위한 노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이었다. 또한 부모, 자식, 친척, 노동자, 하인이 함께 살고 그들의 공통된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개방적 단위였고¹³⁾ 공동체적 생활이 하나의 생산단위를 이루었다. 전통사회의 주거공간 내에서는 가족의 일상과 비일상적 생활뿐만 아니라 물 길어오기, 방아찧기, 저장식품 만들기, 옷 만들기, 다듬이질, 직조 등 반복되는 일상적 삶의 유지를 위한 가사노동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가사노동은 사회의 산업을 대체하는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행위이기도 했다. 또한 양잠, 가축 기르기 등의 생산활동도 이루어졌다. 즉, 이 시대의 주거는 일상생활의 장과 생산활동의 장이 분리되지 않은 직주혼합의 양상을 보였다.

가정 내 잉여 생산물이 판매할 수 있는 재화가 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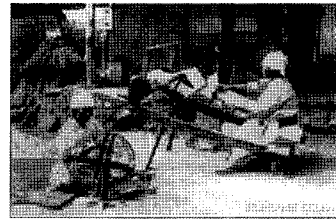


그림 1. 전통 주거공간 내에서의 대표적 생산활동이었던 베짜기 (출처: <http://koreanity.com/>)

부터 생업을 위한 노동은 가사노동과 분리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들의 부업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 한양에서는 이러한 생산활동이 수공업 생산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집안에서 만들어진 면옷, 아마포 모자, 나막신 등 물품들이 부녀자들에 의해 시정(市井)에 내다 팔리기 시작한 것이다¹⁴⁾. 특히 직조(織造)노동은 부녀자들의 대표적 생업 활동으로, 자가소비를 위해서보다 시장교환을 위해 더 많이 생산되었다¹⁵⁾. 상공업의 중심지인 한양에서 가내수공업은 활발한 상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주요 생산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주거공간 내 작업 공간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고 주거생활과 일은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2) 직주일치 주거공간의 등장과 그 배경

집과 일터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 것도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 한양에서였다. 개항 이후 조선사회가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사회 재생산 역할은 주거공간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고 가정 내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은 공장에서 생산된 시장상품과 상업적인 서비스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개항 이후 상인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종로 거리와 남대문 거리는 상점들로 꽉 차게 되었으며, 각 지방을 돌며 교역을 하는 상인들로 북적거렸다<그림 2>.

종로 거리에는 상업행위를 하는 점포, 즉 현방(懸房: 고깃간), 약국, 책방, 서화방 등 시전상가가 등장했다. 또한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민영 수공업 활동은 장인(匠



그림 2. 상점이 번성했던 1897년의 남대문로의 모습 (출처: <http://image.newsbank.co.kr>)

11) 직주일치의 주거공간은 서구에서도 로마시대부터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로마시대에는 길에 면한 전면의 공간에 상점이 배치되고, 주거공간 내 채분소나 빵집의 기능을 갖는 공간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주택들이 많았다(손세관(1993),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열화당, pp. 79-80).

12) Häußermann & Siebel(1996), 전계서, p. 24.

13) 이진경(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p. 64.

14)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p. 108.

15) 구한말까지 남아 있던 양반사회의 전통으로 이 시기 남자들은 생업을 위한 노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물론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도 동시에 해야만 했다(김성희(1998),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pp. 99-100).



그림 3. 구한말 광희문 부근 선인정의 소규모 상점
(출처: <http://koreanity.com>)



그림 4. 1905년 무렵 소빈제조 광경
(출처: <http://image.newsbank.co.kr>)

人)에 의해 소규모 작업장인 장방(匠房)에서 행해졌다. 장방은 주로 상가의 인근에 위치하여 상업행위와 공업행위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¹⁶⁾. 주거공간은 상가와는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시전 후면에 위치하여 생산활동과 가사활동, 가정의 일상생활이 주거 내 혼재된 양상은 지속되었다.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가가(假家)는 대부분 살림집과 붙어있는 직주일치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었고, 장방은 직주근접의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 직주혼합으로부터 직주분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인 가가와 같은 직주일치 공간은 ‘집’과 ‘일터’가 주거공간의 영역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터’로서의 공간이 뚜렷하게 확보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직주혼합의 형태가 사라지면서 생긴 큰 변화는 일의 주체가 변화한 것이다. 과거 여성들이 부업의 차원에서 담당했던 생산활동은 남성들의 몫이 되었고,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가정 재생산 활동을 담당했다.

일제강점기는 급격한 공업발전을 이룬 시기로, 식료품과 생활재 등의 생산은 물론이고 산업 생산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일제강점기는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의 생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업재의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로서¹⁷⁾ 가정과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혁이 이루어졌다. 가내공업¹⁸⁾의 전통은 대규모 공장이 등장한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져 주로 소비재를 생산했고¹⁹⁾, 직주일치의 성격을 갖는 주거들이 모인 소위 ‘공업

촌’이 형성되기도 했음을 다음 글로 알 수 있다²⁰⁾.

“가느다란 연돌이나마 몇개가 옷둑 소사 있고 오막사리 집엿도 떨거덕 소리는 난다. 대개는 실에 염색을 하는 것과 조선 사람에게만 소용되는 직조물을 짠 것이다. 유리(甌子) 공장도 있고 담배통 맨드는 철공장도 있다. 그러나 별노히 만 건축물을 지어 노치는 안코 보통 살림하는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떨거덕어리는 소리가 난다. 길개로 난데는 반찬가가나 담배가가를 벌너 노코 집안에서는 원업이 될지 부업이 될는지 대개가 떨거덕어리는 염색이나 직조업이다.”

또한 생산자가 소비자에 직접 판매를 겸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도 새로운 추세였다. 예를 들어 정미업(精米業)은 소매상을 겸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생산 및 판매활동이 소규모화, 영세화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라는 당시의 사회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가내공업도 계속 증가했다²¹⁾.

한편 판매구조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서울의 상업구조를 보면 시장과 함께 중간 도매를 행하는 상점, 소매업 위주의 소매점, 백화점, 일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이때 한국인은 주로 소매업, 일본인은 도매업 위주였다. 한국인은 전체 점포 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판매금액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²²⁾. 이것이 일제강점기 다수의 소규모 한옥상가들, 즉 직주일치의 형태를 보이는 점포들의 존재 배경이다.

III. 직주일치 주택의 유형과 특성

직주일치 주택은 주거공간의 영역 내에서 생활을 위한 살림공간과 생업을 위한 ‘일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때 두 영역은 뚜렷한 공간적 분화를 보인다. 즉 한 주거공간 내 집과 일터가 공존하지만 생활

19) 일제강점기 총 공업생산액에서 가내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6년에 34.8%, 1939년에 20.2%로, 점차 줄어들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가내공업은 주로 가족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했으며, 자가소비와 전업적 상품생산이 혼재하는 형태였다. 생산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식초 기름 등 식료품, 삼베, 모시, 목면 등 직물, 명석, 뚝자리 등 생활도구 등이었다(허수열(2005), 일제하 조선경제의 발전과 조선인 경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5, p. 29. pp. 342-343.)

20) 작자미상(1929), ‘대경성(大京城)의 특수촌(特殊村)’, 별건군, 23, 1929. 9. 27.

21) 1932년 서울의 정미공장은 71개소였는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자는 겨우 두 공장에 불과하고 기타는 모두 10인 내지 20인 혹은 3인 내지 5인의 직공을 갖는 소위 중소공장이었다(류승렬, 일제강점기 서울의 상점과 객주(1998), 서울학연구, 10(1), pp. 137-138).

22) 한국인의 경우 소매가 현수(軒數:점포수) 전체의 90% 가까이를 점했다. 반면 일본인 도매업자의 경우 전체 도매업자의 60~70%를, 판매금액은 전체 도매 금액의 80% 이상을 점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인은 소매업을 주로 했고, 일본인은 도매업을 주로 했던 데 따른 결과였다. 전체 판매 상황을 보면 한국인은 현수의 60% 이상을 점하면서도 판매금액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일본인은 현수의 30% 정도를 점하면서 판매금액은 70%를 넘었다(상계서, pp. 133-134).

16) 고동환(1998), 조선 후기 서울의 생업과 경제활동, 서울학연구, 9(1),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pp. 93-116.

17) 장지웅(1999),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4.

18) 가내공업이란 가정에서의 공업으로, 가족이 종사하고 거주지, 혹은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공업으로 정의된다(상계서, p. 14).

행위와 생업행위는 분리를 시작한 상태이다. 직주일치 주거공간은 초기에는 수공기능을, 그 다음에는 수공업과 상업기능을 동시에, 그리고 이후에는 상업기능만을 갖는 형태로 변화하는데, 이는 생산과 판매가 혼재했던 것으로부터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는 현상과 관계가 있다. 수공업 기능이 먼저 주거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직주일치 주거공간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행위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²³⁾.

1. 구한말 등장한 직주일치 주택의 초기 형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도시에 위치한 기존의 주택들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게 되었다. 상업이나 공업 등의 기능이 주거공간 내에 수용되어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주택의 유형들이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는 주거공간의 일부를 생산 및 판매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관수동 53번지²⁴⁾의 주택은 종로에 납품하던 물품을 제작했던 곳으로 재료상은 상대적으로 길목이 좋은 곳에 위치했을 것이며, 공방은 골목 안 후미진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공방은 작업장뿐만 아니라 살림집의 역할도 했는데, 채의 구성방식은 갓공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행위와 살림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태가 고려된 것이었다. 갓공방의 두 행랑채는 갓을 제조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실을 구성하였다²⁵⁾.

만리동 박씨가도 아래채, 즉 행랑채가 여러 방들과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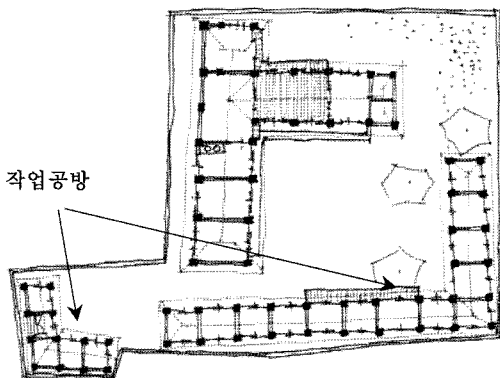


그림 5. 관수동 갓공방의 행랑채에 형성된 작업공간

23) 본 연구에서는 동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직주일치 주거공간의 평면들을 조사하여 통계적인 표준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공간의 변화 현상이 나타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대표서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주거공간을 통시적으로 관찰, 분석함에 있어서 이전시기와 달라지는 변화에 주목하며, 그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있는 단서를 추적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유효성은 이진경(1000)의 연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20~1950년대까지의 직주일치 주거유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망라한 김성욱(1998), 양상호(1985), 윤주향(1997)의 연구논문을 주로 활용하였다.
 24) 관수동 53번지 일대는 예부터 갓 만드는 공방과 갓공방에 재료를 공급해주는 재료상이 즐비해 있어 갓전골이라 불리었다.
 25) <http://digitalhanyang.cultureconten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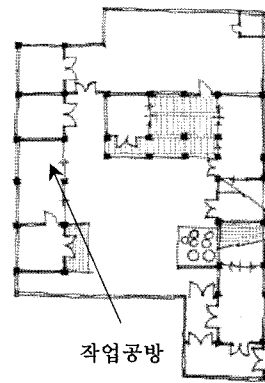


그림 6. 만리동 박씨가 수공업 장소였던 광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름장수 집이었던 이 주택은 광에서 기름을 짜고 저장했던 가내수공업을 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가내공업 행위가 있었던 한옥은 주로 행랑채의 실확장이 두드러지며 살림이 이루어지는 곳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행랑채의 기능이 작업공간이었다는 점은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될 뿐, 기존 공간구성으로부터의 큰 변화는 없다. 말하자면 이러한 구한말의 직주일치 주택의 초기 형태는 과거 하인들의 기거 공간 등으로 사용되었던 행랑채라는 부속채가 근대화 과정에서 작업공간으로 기능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용도 변경되면서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로에는 시전상가가 즐비했다. 이 개별 시전은 여러 행랑이 연이어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형태였고, 이를 방(房)이라고 했다. 각 방은 10간(間)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간마다 시전 상인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였다. 육의전 시전의 경우 5-6방 정도의 꽤 큰 규모였다²⁶⁾. 이러한 전용상가는 독립적 건물로, 상가 주인의 주거용 건물은 다른 지역에 있으며 출퇴근을 하는²⁷⁾ 직주근접의 형태였다. 그러나 도로변 행랑의 후면에 조밀하게 붙여 지어진 주거지가 밀집해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거의 직주일치와 다름없이 주거지가 인접해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행랑채를 상업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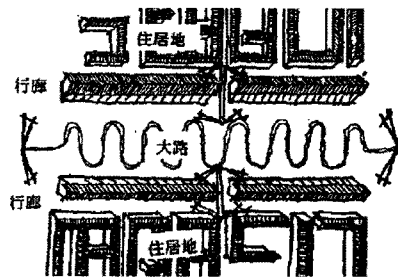


그림 7. 대로변의 행랑상가 (출처: 김유성(1987), p. 67)

26) 고통환(1998), 전계서, pp. 93-116.
 27) 양상호(1985), 2층 한옥상가에 관한 사적 연구 -20세기 전반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0.

행랑은 공방과 달리 변화한 가로에 면하였다. 그러나 행랑채의 좁은 폭 때문에 창고 등의 수장공간이 부족하여 후면의 마당을 이용한다거나,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을 확보하였고, 상품의 진열을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좌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행랑상가가 전용 상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가가(假家)는 대로변에 상업행위를 위해 대로를 침범하면서 무단으로 설치된 노점과 같은 것으로 필요에 따라 종종 철거되고 다시 세워지곤 하였다. 이 가가의 후면에도 보통 살림집이 접해있어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상업행위가 이루어졌다.

2. 직주일치 주택의 유형

1) 행랑형

주로 일제강점기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살림하는 본채와 일터가 서로 분리되었다. 보통 대로변에 위치한 전면의 행랑은 상당히 큰 규모를 보이며 2층 한옥상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업공간이 확장될 필요로 인해 1층에서 2층으로의 수직분화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행랑은 여러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고 후면의 채 역시 다수의 채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 생활공간 내에서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여 직주혼재와 직주일치의 중간 단계라 볼 수 있다. 점포로는 전면의 출입구로 출입하고, 후면의 살림채로는 개별적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다. 1900년대 초에 등장한 이러한 2층 한옥상가는 단순한 점포만이 아니라 사업장의 성격도 띠고 있어 2층은 주로 사무실 및 영업장, 창고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1920년대에는 남대문로와 종로에 2층 한옥상가가 대거 등장했는데, 살림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후면에 위치한 살림채는 점포 부분과 진입공간이 분리되었다. 2층으로의 계단은 내부에서 오르게 되어 있거나, 또는 외부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1920년대 2층 한옥상가와 그 주거공간의 모습은 박태원의 자전적 소설을 분석, 경성의 공간적 배치를 추적한 조이담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²⁸⁾.

“박태원의 다옥정(다동) 7번지 집은 광통교(광교) 부근의 청계천 남쪽으로서, 그의 부친 박용환의 약국(공에당약방)을 낀 일종의 주상복합 상가이다. 박태원의 자전적 수필에는 아홉 살 때 ‘안잡자기가 주인마님 몰래 세를 내 온 한 권의 춘향전을 나는 신문에 싸들고 약방으로 나가 이층 구석진 방에서 반일을 탐독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전면의 약국점 부분이 이층구조로 된 한옥상가로 생각된다. 공에당약방은 전면 폭이 좁고 위, 아래로 긴 모양(대략 7x26 m)의 대지로, 55평(연면적 70평) 정도(약국15평 내외)의 규모로 추정된다.....(중략)....상가 전면에 유리창문을 통해 청계천 맞은편에서도 보이는 한약국과 거기에 딸린 사랑방이 있고, 대문간 옆에는 양철지붕으로 된 약재창고가 있다.....(중략).....약국일이 끝나면 함빈지(함석으로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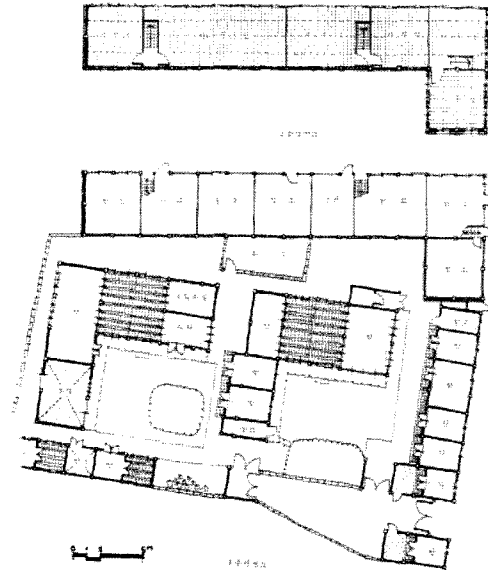


그림 8. 행랑형: 관훈동 박원옥 가옥, 1920년대 후반
(출처: 양상호(1985), p. 82)

데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문)로 닫는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파랑칠한’ 중문으로 상점과 주거 쪽이 나누어져 있다. 대문에서 중문쪽 가까운 곳에 행랑이 하나 있고, 안채는 중문 건너편에 있다. 여기에 살았던 식구들은 대략 1934년을 기준으로 어머니, 형 친원부부, 두 명의 행랑채 가족들(5명 내외), 약국 일을 돕는 소년, 박태원과 그의 동생 문원 등 최소한 10명 가량이 기거했다.”

행랑형은 공방과 같이 행랑의 대부분을 점포로 사용하는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었다. 대표적 사례는 관훈동의 박원옥 가옥으로, 7자의 긴 행랑채가 가로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그 중 전, 후면 2칸 규모의 큰 행랑이 점포와 사무실용으로 2층으로 되어 있다. 후면에는 ㄷ자형의 살림채와 7자형의 부속채 겸 행랑채 두 동이 배치되어 있다.

2) 외부공간 퇴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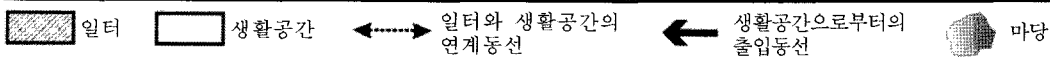
도시가 과밀화되어 전면 필지의 폭이 매우 좁아졌을 경우 후면의 주택은 필지의 깊이 방향으로 간이 확장되고 가운데 긴 중정이 형성되어 이른바 세장형(細長型)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때 후면의 살림채에서 점포에 붙은 방은 미세기문으로 점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쪽마루도 부가되어 생활과 일이 강하게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생활공간으로의 진입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점포를 통해 진입하기도 하고 후면의 부엌을 통해 진입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 주택들이 옆의 주택들과 필지 경계를 공유하면서 붙어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좁은 대지로 인해 외부공간은 최소화되어 거의 통로공간처럼 변하였고 여기에 점포의 2층 부분으로 출입하는 계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후면의 건물 폭은 2칸으로 최소화되었는데, 그나마 한 칸은 부엌으로 할애되었다. 이렇게 2층으로 지어진 상점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³⁰⁾.

28) 조이담(2005),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pp. 50-51.

표 2. 직주일치 주택 사례목록

유형	도식	사례29)	건축시기	위치		
행랑형		박원우 주택	1920년대 후반(추정)	종로구 관훈동 112		
		박노승 주택	1920년대 후반(추정)	종로구 청진동 20		
		김선옥 주택	1930년대 초반(추정)	종로구 체부동 43		
외부 공간 퇴화형		한만년 주택	1920년대 후반(추정)	종로구 견지동 99-1		
		유재휴 주택	1920년대 후반(추정)	종로구 내자동 222		
		홍파동 주택	1940년대 초반	종로구 홍파동 194		
2층상가 분리형		둔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성동구 송인동 101번지 일대		
		둔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성동구 보문동 87번지 일대		
		북아현동 주택	1936년	서대문구 북아현동 3-158		
		신당동 주택	1949년	중구 신당동 168-1		
소규모 2층 점포형		체부동 주택	1934년	종로구 체부동 44		
		이길범 주택 조동진 주택 권영중 주택 정태명 주택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성북구 삼선동 5가 일대		
		오세진 주택	1930년대 초반(추정)	종로구 내자동 168-1		
		박재규 주택	1930년대 초반(추정)	종로구 체부동 50		
		증정형 전면 점포형		북아현동 주택	1940년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2
				내자동 주택	1940년대 초반(추정)	종로구 내자동 196번지
위재승 주택	1930년대 초반(추정)			서대문구 대흥동 12-32		
후면 겹집형		한강로 주택	1930년대 말	용산구 한강로 2가 21-4		
		쌍림동 주택	1924년	중구 쌍림동 182-73		
		김효숙 주택 한상욱 주택 정은선 주택	1940년대(추정) 1940년대(추정)	용산구 한강로 1가 일대		
		생활 공간 퇴화형		이동춘 주택 강숙희 주택 고석봉 주택	1940년대 말(추정)	용산구 한강로 1가 일대
한강로 주택	1930년대 말 추정			용산구 한강로 2가 223-7		



29) 김성욱(1998), 양상호(1985), 윤주향(1997)의 연구논문 및 서울시립대학교(2003) 연구보고서의 실증 사례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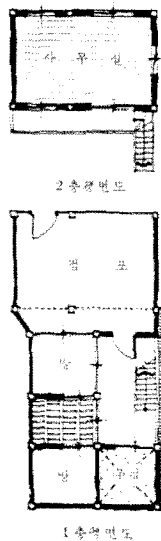


그림 9. 외부공간기화형: 건지동, 1930년대 초반
(출처: 양상호(1985), p. 80)

“아래층은 작은 가게들이 들어서 있지만 가게 입구가 거리로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마당으로 나 있고, 그 안에 주인이 웅크리고 앉아서 안마당에서 있는 손님에게 물건을 파는데, 이 가게들이 얼마나 협소한지 주인 혼자만이 그 안에 서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이다.”

3) 2층상가 분리형

전면 2칸, 후면 4칸의 대지규모에 꼭 찬 건물은 전면에 일자형의 점포가, 후면에는 이에 연계된 ㄱ자의 살림채가 함께 ㄷ자의 평면을 이룬다³¹⁾. 이때 점포와 생활공간은 붙어있지만 별도의 구조로 분리된 것이 특징이다. 생활공간으로부터 일터로 출입할 때는 중정을 거치게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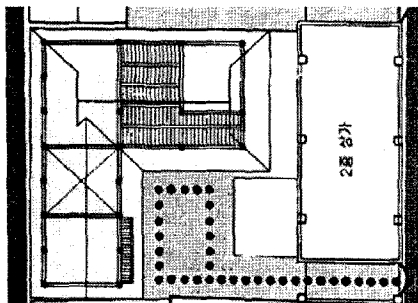


그림 10. 2층상가 분리형: 송인동, 1930년대 후반
(출처: 서울학연구소(2003) p. 147).

30) 김영자 편역(1994), 서울, 제2의 고향 -유럽인의 눈에 비친 100년 전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p. 88.

31) 이러한 유형은 1935년 이후 경성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필지번호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이후 1940년대 돈암동, 삼선동 등 변두리에 영세규모의 소매상점으로 작은 규모의 2층 한옥 근린상가를 형성하였는데, 대로변의 한 켠 필지가 노선상업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1935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필지의 형태에 따라 그 공간구성도 매우 전형적 성격을 띠며 평면의 단순화, 구조의 일체화를 특징으로 한다(문정기, 송인호(2003), 삼선동 5가 이층한옥상가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p. 424).

어 있다. 살림채로의 출입은 점포를 통해서, 그리고 전면에 뚫린 건물 측면의 출입도로를 통해서 동시에 가능하다. 점포의 2층 부분으로의 출입은 별도로 형성된 현관을 통해 이루어져, 집과 일터의 두 영역간에 상당한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상가주택에 비해 살림채 부분은 최소화되고, 2층 상가부분은 확대되었는데³²⁾, 이는 가로에 면한 전면이 상업화된 건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면폭의 제한 때문에 점포와 직각으로 배치된 살림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보는 형식을 취한다. 이때 대청은 매우 축소되어 마치 복도와 같이 좁은 폭을 갖는 경우도 있다. 부엌은 안방이 꺾이면서 그 아래 배치되었다.

4) 소규모 2층 점포형

소규모 주택의 전면 2칸을 2층으로 확장하여 점포 및 창고로 사용하는 주택이다. 전면의 점포에 후면의 생활공간이 ㄱ자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을 취하고 있다. 이때 대청이 점포와 평행 배치되고 부엌이 직각 배치된 형식, 그리고 그 반대의 형식으로 두 유형이 나타난다. 보통 대청의 폭은 전면의 필지 폭에 의해 좌우되는데, 필지의 폭에 한계가 있으므로, 폭이 매우 좁아져 대청이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자의 형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생활공간에서 점포로의 진입은 중정으로 나 있는 여단이문, 또는 미단이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생활공간으로의 진입은 후면, 또는 측면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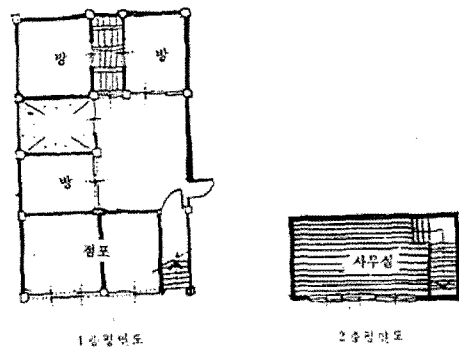


그림 11. 소규모 2층점포형: 삼선동, 1940년대 초반
(출처: 윤주향, 1997,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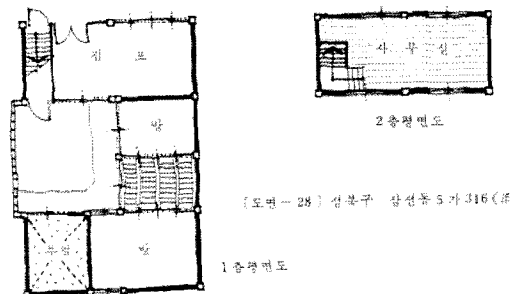


그림 12. 소규모 2층점포형: 삼선동, 1940년대 초반
(출처: 양상호(1985), p. 91).

32) 양상호(1985), 전거서, p. 54.

로 난 대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2층 점포의 동선은 외부 가로에서 직접 진입하거나, 1층 점포에서 진입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두 형태가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5) 중정형 전면점포형

2층 한옥상가와 달리 비교적 여유 있는 대지에서 점포 부분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확장된 경우이다. 중정을 둘러싸는 정방형의 口자 건물 배치에서 口자의 한 부분이 단층점포로 사용된다. 점포로의 동선과 생활공간으로의 동선이 모두 중정을 향하게 되어 있어 중정은 일과 생활의 중심공간이 됨을 알 수 있다.

6) 후면 겹집형

비교적 여유 있는 대지인 경우 후면의 생활공간이 여러 실로 분화된 경우이다. 즉, 방, 부엌, 마루가 田자형으로 겹집을 이루고 생활공간과 점포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정한 형식이 없이 다양한 평면을 구성하는데, 이는 건설 방식이 한옥의 구축방식에서 탈피했기 때문이다. 후면의 실들은 겹집이면서 마당 없이 좁은 통로로 측면에 일렬로 배치되어 채광에 상당한 불리하다. 1, 2층에 생활공간과 점포, 또는 사무공간이 불규칙하게 혼재된 유형이다. 후면을 모두 생활공간으로 사용함에 따라 외부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7) 생활공간 퇴화형

‘간이식 상점’³³⁾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상복합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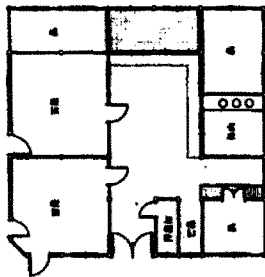


그림 13. 중정형 전면점포형: 북아현동, 1940년대 초반 (출처: 김성욱(1998),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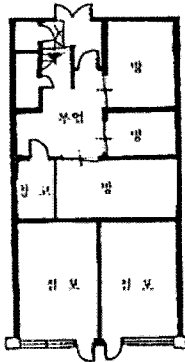


그림 14. 후면 겹집형: 한강로, 1940년대 초반 (출처: 윤주향(1997) p.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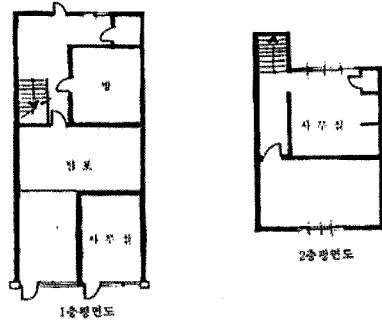


그림 15. 생활공간 퇴화형: 한강로, 1949년 (출처: 윤주향, (1997), p. 93).

은 5-8세대의 합동 건축으로 전면에 2층 연립상가를 배치하고 후면에 살림채를 배치한 것이다. 이 유형은 최소한의 생활공간만 남기고 거의 모든 부분이 점포화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지는 세장형을 취하고 있으며, 전면으로는 점포로 진출입하고, 후면으로는 생활공간으로 진입한다. 외부공간은 2층 사무실로의 계단이 배치된 좁고 긴 형태이다. 방은 점포와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데 외부공간이 거의 소멸되었으므로 채광과 환기에 상당한 문제점을 보인다. 방이 점포의 부수적 공간으로 퇴화한 경우, 부엌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인근에 또 다른 생활공간이 있음을, 즉 직주근접의 형태로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IV. 직주분리와 근대적 삶의 정착

근대화 과정에서 분업이 시작되고 민간소비 시장이 확대됨과 동시에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상황은 노동력을 생성하는 기반이 되어 주거 밖의 공간에서 ‘일터’가 생기는 배경이 되었다. 가사노동도 사회화되면서 가정생활의 여러 기능은 사회로 편입되거나 사회 분업으로 수행되었고³⁴⁾ 공장도 급격히 증가했다³⁵⁾. 근대화 과정에 나타나는 이러한 생산 체계의 변화는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가내수공업에 의해 생산되던 생필품들은 집 밖에서 생산되어 가정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초에는 최초의 양과자점이 생겨났으며, 청량음료, 통조림, 과자 뿐 아니라 제분업, 도정업 등 각종 식품을 가공해서 생산해내는 제조업이 등장했다³⁶⁾. 식품 가공 공장의 설립은 가정에서 곡식을 찧고 분쇄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생활에 불어닥친 변화도 새로운 생산활동을 유발했다. 가정에서 지어 입던 한복은 구입해서 입는 양복으로

34) 김성희(2002), 전계서, pp. 137-242.
 35) 1911년에는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공장의 수가 252개였고, 1930년에는 5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공장이 4,261개로 증가했다(최태호(1996), 근대한국경제사 연구. 국민대학교출판부, pp. 245-256).
 36)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조선정미주식회사(1916년), 조선제분주식회사(1918년), 조일정미소(1920년) 등이 속속 설립되었다.

33) 윤주향(1997), 1940-50년대 2층 목조상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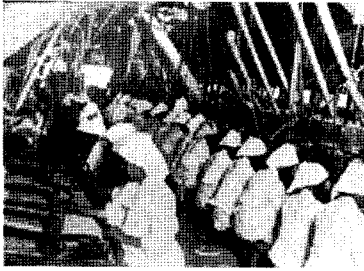


그림 16. 일제강점기 정미소에서 일하는 여성들
(출처: <http://image.newsban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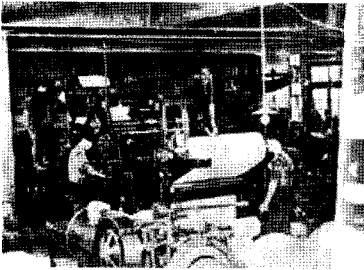


그림 17. 1930년대 인쇄공장에서 일하는 남성들
(출처: <http://image.newsbank.co.kr>)

대체되었고, 학생의 수가 증가하면서 학생복 등을 만들어 파는 가게도 생겨났다.

여성들도 집을 떠나 일터로 향했고 주로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제사공장, 방직공장, 고무공장, 정미공장의 여공으로 취업하였다. 집안에서 만들어져 소비되던 모든 것들은 집 밖에서 만들어져 시장, 백화점 등의 소비공간에서 소비되어 집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변했고, 이를 위한 재화를 벌기 위해 사람들은 집 밖에서 또 다른 생산 활동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남성들도 날마다 새로 생기는 공장과 사무실로 새로운 직종을 찾아가게 되었고, 생업의 장소는 주거 밖으로 차차 옮겨갔다.

이렇게 집과 일터가 분리되는 것은 가장 뚜렷한 근대적 사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³⁷⁾. 직주근접은 직주분리의 전 단계로, 집과 일터가 분리된 양상을 보인다. 직주근접과 직주분리는 그 분리된 물리적 거리가 근거리인가 원거리인가로 구분될 뿐이다. 전차 등 대중적 원거리 이동수단이 등장하기 이전, 그리고 그 이동 비용이 고가였을 때 일터와 주거공간은 근접할 수밖에 없었다. 직주근접에서 직주분리로의 이행에는 근대적 교통수단의 등장이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 내 사무 및 상업공간이 확대되면서 도시공간 내 도로망의 확충과 교통시설의 발달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로써 집과 일터는 더욱 광역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등장한 노동자 집합주택인 조선영단 주택은 이후 직주분리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도심과 떨어진 교외에 집단적 주거지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주거지까지의 전차노선도 함께 연장, 확충하였는데, 이로써 일상적 삶이 주기성을 갖고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는 근대적 삶의 대표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하루의 일상에서 출퇴근 시간대가 정해지고, 직장에서의 노동 후 주거공간에서의 휴식이 이루어지며, 주중의 일과와 주말의 일과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다.

공장³⁸⁾, 집, 학교의 공간들은 개개인을 근대적 형태로 생활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특정한 힘을 행사하고, 그것은 개인이 특정한 형태의 생활양식을 습득하고 반복하게 하는 영역이 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뚜렷이 분리되어, 산업사회에서 주거공간은 여성의 공간, 사회는 남성의 공간으로 재편성된다. 예컨대 노동자의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을 그 사회적 장으로부터 분리하여 고립된 가족적 공간으로 재영토화 하는 ‘반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³⁹⁾.

상업행위 역시 주거공간 반경 내에서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사례 중 생활공간 퇴화형에서는 직주일치 주거공간이 거의 사라져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로써 가정과 사회는 분리되며, 주거공간은 생업을 위한 노동이 행해지는 공간과 대비되는 사적 공간으로 정착하고 ‘휴식’이 주거공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된다. 주거공간과 사회적 공간이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될 때, 주거공간은 가족만의 배타적 영역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⁴⁰⁾. 즉, 집과 일터의 분리는 주거공간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였고, 가족만의 공간인 근대적 주거공간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거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과 일터’의 관계 변화와 함께 직주일치의 특성이 나타나는 여러 유형들의 주택들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주거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삶의 방식이 공간에 가감없이 드러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직주일치의 주거공간은 생업의 장이 분리되고 가족의 단란이 최고의 기능이 되는 근대적 주거기능으로의 이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주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대화 이전에는 없었던 공적 공간인 도시공간이 등장하면서 이곳으로 가정의 많은 기능들이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직주일치 주거공간은 생업의 장소

37) “사적인 장(場)인 집, 생산의 장인 공장, 교육의 장인 학교는 근대적 삶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이며, 이 공간은 개개인을 ‘근대인’으로 만들어내는 장이다.”(이진경(2000), 전계서, pp. 9-10).

38) 여기서 ‘공장’으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생업의 영역은 근대사회에서 등장한 주거공간 외에서의 각종 직장과 동격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병원, 음식점 등과 같은 서비스 영역, 회사 등의 사무영역 등이 그것이다.

39) 상계서, p. 10; p. 310.

40) 상계서, p. 10; p. 320.

가 옮겨가는 과도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즉, 직주혼합에서 직주일치로의 변화는 근대적 주거공간에서 도시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가 형성되어가는 변화의 출발선상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 고찰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시기의 직주일치 주거공간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주일치의 주거공간이 나타난 1920년대 초반은 근대 도시한옥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특히 행랑형을 제외하고 점포가 건물과 일체화된 유형들은 거의 도시한옥이 밀집화되어 지어지던 1930, 4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었다. 즉, 이러한 유형이 한옥의 한 형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서구식의 양옥과 공동주택이 도입되기 이전, 한옥이 도시화 과정에 적응하면서 공업과 상업의 기능을 수용하는 등 복합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사적 공간으로의 주거공간으로 정착하기 이전 근대적 삶을 수용하는 다양한 주택의 유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기도 하다.

둘째, 생업의 장소인 일터와 생활의 장소인 집은 그 사이의 동선 연계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때 일터의 공간은 확장되어가는 반면 살림을 하는 생활공간은 후기의 주택일수록 점차 축소되어가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즉, 주거공간 내 생업을 위한 일과 사적 생활은 여러 단계의 분리의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례에서 살펴본 직주일치의 주택들은 대부분 일터와 집이 수평적으로 분리되었고, 서구의 경우에서처럼 하부는 상업공간, 상부는 주거공간으로 구성되는 수직분리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전면의 점포가 2층화되고 확장되더라도 1층과 후면에 생활공간을 배치하는 원칙이 유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직주일치 형식이 있었던 1920-1940년대에는 다층주택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이후 다층주택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미 직주 분리가 정착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전통적으로 접지(接地)의 관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구식 주택이 정착한 1950년대 이후에도 직주일치의

주거공간은 종종 나타난다. 이 시기의 직주일치 주택에 대한 연구 역시 후속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2. 김영자 편역(1994), 서울, 제2의 고향 -유럽인의 눈에 비친 100년 전 서울-,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3. 박재환 편(200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
4. 이진경(2000),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5. 전남일 외(2008), 한국주거의 사회사, 들베개
6. 조이담(2005),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7. 주남철(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8. 최대호(1996), 근대한국경제사 연구. 국민대학교출판부.
9. 고동환(1998), 조선 후기 서울의 생업과 경제활동, 서울학 연구,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9(1), 93-116.
10. 김성옥(1998), 1920~1950년대 서울지역 상업건축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성희(1998),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97-105.
12. 김유성·김성우(1987), 조선조 한양의 가로변 상업건축(행랑)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7(2), 63-68.
13. 류승렬(1998), 일제강점기 서울의 상점과 객주, 서울학연구, 10(1),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4. 문정기·송인호(2003), 삼선동 5가 이층한옥상가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421-424.
15.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2003), 서울의 도시한옥주거지 유형과 현황.
16. 양상호(1985), 2층 한옥상가에 관한 사적 연구 -20세기 전반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윤주항(1997), 1940-50년대 2층 목조상점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장지용(1999),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허수열(2005), 일제하 조선경제의 발전과 조선인 경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5, 342-347.
20. H. Häußermann & W. Siebel(1996), Soziologie des Wohnens, Juventa.
21. <http://digitalhanyang.culturecontent.com>
22. <http://koreanity.com>
23. <http://image.newsbank.co.kr>

접수일(2009. 6. 5)
수정일(1차: 2009. 8. 3)
재확정일(2차: 2009. 9. 3)